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이 수 정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변 지 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사람들의 잠재적인 위험성향을 측정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신입재소자들의 범죄적 위험행동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재범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들 변수들을 탐색하여 봄으로써 수감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상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개인의 범죄적 성향을 측정하여 각기 관리급과 개선급의 산정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우선 재소자들의 내재적인 위험소양과 범죄성향을 측정하는 교정심리검사를 제작하고 이 심리검사의 결과와 범죄관련 변수들이 얼마나 문제행동과 본 범 및 전과내용을 예측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관리상의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미결시의 생활태도,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교정상담 결과, 망상경향, 과거 자해경력, 과거 가출경력,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월 평균 접견횟수, 최종 학력 등이, 범죄의 심각성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범수, 형기, 비행을 포함한 모든 범법행위 건수, 과거 교정시설 수용기간, 과거 보호시설 수용기간,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재범기간, 범행 시 흥기 사용, 범죄의 동기, 자포자기 경향, 공격성향, 미결 시 생활태도, 폭력조직 가담 여부, 보호자의 월 평균 접견횟수, 부모의 생존 여부, 최종 학력 등이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교정, 심리측정, 위험성 예측, 수형자 분류

교정정책에 있어서 수형자의 분류란 그리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응보, 무능력화, 교화개선 등 그 시대의 교정이념 또는 철학에 따라 수형자의 분류는 그 역사적 면모를 바꾸어 왔다. 19세기초 수형자의 노동을 통한 소득의 확보가 교정관리의 주요 목표로 부각되었을 때, 교화와 개선은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하였다. 1930년대까지 경제적, 정책적으로만 받아들여져 온 교정관행은 그 후 1960년대 범죄와 비행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들이 제안되면서 교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환경 변화의 저변에는 범죄자는 궁극적으로 교화·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자리잡고 있었던 바, 그 후 범죄자들을 위한 교화·개선은 교정의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교정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나 선시제도와 같은 것이 이런 처우들의 구체적인 예인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에 모든 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적인 선별과정을 통하여 수형자들을 선별하는 절차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고 이것이 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었다(이운호, 1999).

그러나 60년대 후기, 70년대 초기 행정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적용되던 교정분류의 관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우선, 법원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던 분류제도는 재소자의 행위에 관한 확실하지 않은 가정과 일관된 적용의 불가로 많은 쟁송을 야기하였다. 두 번째, 주관적 분류제도는 실제 수형자들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구금시설의 보안수준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게 한다. 세 번째, 과밀수용과 재정자원의 축소로 교정당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적인 엄격한 보안수준의 유지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많

은 수의 수형자들이 보안수준이 낮은 시설에 수용되거나 지역사회로 방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끝으로, 임상적 판단이나 직관이 수형자들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대두되게 되었다(Solomon & Camp, 1993). 이와 함께, 특히 폭력범죄와 같은 사회의 범죄문제의 악화에 대한 공공의 관심 증대도 분류심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여건은 정의모형과 선별적 무능력화라는 교정철학에 따라 위험성의 예측과, 적합한 보안수준의 유지를 위한 범죄자의 선별(screen)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나아가 법원과 교정당국은 수형자분류를 교정시설의 운영과 행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최근 사회과학과 형사사법의 발전과 통계적 기법의 활용은 더욱 이러한 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객관적 분류가 발전하기 전 수형자의 분류결정은 교정 실무자의 경험, 직관, 그리고 주관적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였다. 때로는 교정기관에서 분류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할 범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각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평가와 판단은 여전히 해당 분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이 같은 주관적 분류는 재소자의 부적절한 수용, 일관되지 못한 의사결정, 과다분류와 시설의 비효율적 활용, 미래의 시설이용이나 계획에 대한 자료부족,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부적절한 적용을 초래하였다(Solomon & Camp, 1993)¹⁾. 더구나, 주관적 분류제도는 자세한 문서화

1) Solomon, L., & Camp, A. T. (1993). "The revolution in correctional classification," pp.1-16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ed.), *Classification: A Tool for Managing Today's Offenders*, Layrel,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p. 2.

나 기록을 거의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수형자 집단이나 인구의 분류수준을 측정하거나 재소자가 그들의 보안수준에 맞는 시설에 수용되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런 기록 또는 문서화의 부재는 분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게 하였고 인력, 수용공간,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획하는 데에 분류자료를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이 같은 주관적 분류제도에 의한 책임소재의 혼란과 문서화의 부재는 재소자의 부적절한 수용결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법원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험성, 임의성, 일관성의 부재, 그리고 타당성의 결여가 주관적 분류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법원이나 교정협회와 같은 기준 설정기관에서는 이 같은 주관적 분류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 분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형사정책의 보수화 등에 기인하여 수용인구의 증대와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곧 과밀수용으로 이어져서 교정에 상당한 긴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한 긴장 중에 하나는 공공의 보호라는 교정의 일차적인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제한된 수용시설과 부족한 재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재소자관리 및 교도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수형자의 분류가 교정관리의 도구로서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더불어 교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도 분류와 교정관리를 관계지움으로써 실현되게 되었다. 즉 재소자의 위험성 정도에 상응하는 시설에서의 수용, 및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가석방 심의 등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절차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평가절차를 개발·적용하게 되었던

것이다(Austin, 1986).

객관적 평가절차를 통한 법원의 개입은 1970년대부터 미연방 교정국을 필두로 캘리포니아주 교정국과 미국의 국립교정연구소에 의하여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객관적 분류의 기준들은 특성상 매우 사실적이며 교정시설 내 규율엄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소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련성을 지니는 것들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네 가지 분류유형은 미국 국립교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의 구금결정모형(Custody Determination Model), Quay의 성인 수형자 관리제도(Adult Inmate Management System, AIMS), 미국 교정국에서 이용하는 연방모형(Federal Model), 그리고 California 모형이다. 그밖에, Megargee 등은 수용생활에 대한 재소자의 적응을 측정할 목적으로 재소자유형(Inmate Typology)을 개발하기도 하였다(Van Voorhis, Braswell, Lester, 2000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분류심사의 절차는 외관상 객관적 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형자처우는 개별 분류처우와 단계적 누진처우로 구분된다. 이 중 개별처우의 종류는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이 있는데, 수용급은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 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개선급은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에 따라 수용하여야 할 시설의 기준 및 책임점수의 산정기준이 되고, 관리급은 계호, 즉 경계의 정도를 구별하여 주는 기준이며, 처우급은 처우의 주요지침, 즉 교화내용을 구별하는 준거가 된다. 개별처우와는 별개로 누진처우는 4단계로 나뉘어 신입 시 4급부터 단계적으로 1급까지 진급하는 형태인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산술적 점수로 환산하여 진급을 결정한다.

이들 분류처우의 종류 중 수형자 처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류기준은 개선급이다. 범죄의 성향을 결정하는 개선급의 판정기준은 외견상 객관적 평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수형자의 생활과정, 교육 및 직업과정, 본 범 내용, 범죄경력, 교도관의 심사평정 등으로 분류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분류지표 상 점수의 기준 및 가중치의 부여가 매우 모호하게 정하여져 있어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과거전력이 수형자들 자신의 응답에 의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에 의도적인 왜곡경향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교도관들의 심사평정의 경우, 대부분의 판단이 본 범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역시 객관적으로 수형자들의 범죄적 성향을 측정하는지 의문시된다(권태정, 1991).

더구나 4 개의 분류기준은 상당히 상호의존적이다. 즉 개선급에 의하여 관리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처우급 역시 영향을 받기에 이들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 누진점수는 여러 관련 변수에 의하여 가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한 번의 문제유발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모든 분류급 결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누진점수의 산정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만약 수용 초기에 유발한 우연한 실수로 인해 남은 수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결국 수형자는 자력갱생의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적었던 수형자를 점차 문제수형자로 만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수형자 분류처우 지침의 문제점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수정, 이운호, 공정식, 2000)²⁾. 따라서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

어졌는 바, 현 연구는 이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 대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주관적 편견에 의해 다분히 영향을 받으며 수형자들의 거짓 대답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분류처우에 대한 기준을 좀더 다양화·객관화하면서, 수형자들의 범죄성향을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안적인 선별도구를 개발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화하여 현장실무자들이 좀더 손쉽게 수형자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1에서는 수형자의 범죄적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교정심리검사를 개발하였다. 교정심리검사는 기존의 심리측정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형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범죄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교정심리검사와 다른 범죄관련 예측치들이 현행 분류심사의 체제 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탐색되었다. 최종적으로 범죄성향을 측정함에 있어 이들 예측치들의 상대적 민감성이 최종적으로 전산화되면 수형자들에 대한 분류심사의 절차는 상당히 객관화, 간편화되리라 예상된다.

연구 1 : 교정심리검사 개발

수형자의 폭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재범여부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폭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가석방의 심리(parole hearing), 형의 선고(sentencing), 정신이상으로 인한 청원(insanity pleas)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Cohen, 1996; Serin, 1990)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진단을, 법정에서 피의자의 폭력 및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

2) 이수정, 이운호, 공정식 (2000). 수형자들의 위험성 요인분석과 변별도구 개발. 형사정책연구, 11, 4, 145-177.

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서구와 같이 공식적인 심의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부 형사사건에 대하여서는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심리학자들에게 진단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많은 찬반논쟁이 진행되고 있다(Monahan, 1981; Streadman & Cocozza, 1980)³⁾.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위험한 행동을 미리 예견하려는 노력은 허위 긍정(false positive)의 오류가 오히려 인권에 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문헌은 임상가 또는 위험성 판단에의 전문가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문제소지자의 잠재적인 위험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ohen, 1996; Otto, 1994; Quinsey, 1995). 이들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행동, 즉 위험성의 수위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비교적 예측의 정확성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Cohen, 1996).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Motiuk, & Porporino, 1989)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절차 이외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초한 심리학적 의뢰 선별도구(psychological referral screening tool)의 개발을 추진·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도구에서는 재소자들의 정신과적 혹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기록이 약물사용, 전과기록, 폭력에 대한 기록 등과 함께 범죄의 상습성(recidivism) 혹은 지역 사회에서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erin, 1990).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Monahan과 Walker(1985)에

의해 정리되어, 징역기간과 가석방 결정에 과학적인 준거지표로서 참조되고 있다.

나아가 심리학 연구들은 범죄자 개인의 과거 범죄경력 이외에도 심리측정학적 특징들이 범죄의 발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훨씬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가(Witkin, Mednick, Schulsinger, Bakkestrom, Christiansen, Goodenough, Hirschhorn, Lundsteen, Owen, Philip, Rubin, & Stocking, 1976), 망상 등의 기질성 질환이 있는 수감자의 13%는 살인, 12%는 강간이나 성폭행, 13%는 강도, 11%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보고(Litwack & Schlesinger, 1987)는 심리학적 선별도구들이 범죄관련 장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여 준다. 물론 아직까지 정신질환자들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위험한 행위의 기준 및 법적 처리결과 등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기에 한가지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기는(Hafner & Boker, 1973; Teplin, 1985) 하나, 여전히 수형자의 범죄심리적 특징을 측정하는 일은 그들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함이 지적되어 왔다.

범죄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들이 양형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에 비해 심리학적 측정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분류심사를 위하여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MMPI 점수들을 이용하는 Zager(1988)의 분류방식과 Megargee (Megargee, 1994)⁴⁾의 분류방식이 있다. 수형자분류를 위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활용되는 MMPI 점수들을 이용한 분류방법은 가석방심사위원회나 기타 의사결정기관에게 외부통과 같은

3) Monahan, J. (1981). The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Toward a second generation of theory and polic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0-15.

4) Megargee, E. (1994). Using the Megargee MMPI-based classification with the MMPI-2's of male prison inm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37-344.

처우 프로그램의 적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공격적인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재소자와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요령을 부리는 재소자를 구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나, MMPI가 애초에 선별보다는 진단을 목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개발되었던 검사이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검사가 아님을 고려할 때 적용 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최근 지적되고 있다.

반면 Quay의 성인범죄자내부관리기법(Adult Internal Management System, AIMS)은 주요 분류기법 중에서도 재소자가 직접 설문이나 면접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 가지의 객관적인 도구가 이용되는데, 하나는 재소자의 행위 등을 잘 알고 있는 교도관에 의하여 완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양식에 따라 구조화될 필요가 없는 선고 전 면접이나, 일반 입소면접을 진행하고 재소자의 배경기록을 조사하는 문서담당에 의하여 완결되는 것이다. 이 검사의 결과는 비사회적 공격적(Asocial aggressive), 미성숙 의존적(Immature Dependent), 조작적(Manipulative),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ous), 그리고 상황적(Situational)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수형자들을 분류한다. 이들 분류의 결과는 처우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수형자들의 시설 내 적응을 위한 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Quay, 1984).

현 연구는 이 같은 맥락에 따라 수형자들의 위험성을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하는 감별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수형기간 중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처우급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사에도 융통성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감별도구의 개발은 일련의 형사법적 의사결정과정, 즉 처우급 결정에서 가석방 결정에 이르기까지, 제한적이거나 선별과 예측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그 유용성을 발휘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국 심리검사개발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유발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선정된 문항에 대한 이차타당화 연구를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 중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차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국 교도소 표본을 대상으로 할당 표집되었는 바, 표집의 구성은 표 1과 같았다.

전체 표본대상은 총 1,500을 선정하여 전국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전국표본조사에 응답한 자는 1,337명(89.1%)이었으며(표 1), 응답자들 중 남자수형자는 1,126명(84.2%), 여자수형자는 211명(15.8%)이었다. 이들 중 1급수는 12.6%, 2급수는 17.1%, 3급수는 33.2%, 징벌자는 29.9%가 포함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을 본 범 내용으로 분류해 본 결과 70명(5.9%)이 절도범이었으며, 243명이 강도범(18.2%), 폭력범이 119명(8.9%), 사기범이 126명(9.4%), 살인범이 434명(32.5%), 강도강간범이 224명(16.8%), 약물관련 범법자가 30명(2.9%), 과실범이 32명(2.4%), 마지막으로 공안사범 등 기타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41명(3.1%) 있었다. 이들의 평균 형기는 140개월($SD = 225.05$ 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수와 징벌회수의 경우 응답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범수 상의 차이는 없었으며, 징벌회수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1, 1335} = 64.46, p < .001$). 응답자들의 평균 범수는 1.88번($SD = 1.53$ 번)이었으며, 남자 수형자들의 평균 징벌회수는 .81번

표 1. 전국 표본조사의 구성

기관별				기관별			
기관별		대상인원	실시인원	기관별		대상인원	실시인원
서울청 (7)	안양(교)	47	46	(11)	안동(교)	49	49
	영등포(교)	44	43		경주(교)	38	38
	수원(교)	46	42		계	514	444
	의정부(교)	41	40	대전청 (6)	대전(교)	101	86
	춘천(교)	45	45		천안소년(교)	54	49
	원주(교)	52	49		청주(교)	54	51
	강릉(교)	35	35		공주(교)	55	49
	계	310	300		청주여자(교)	77	70
대구청	대구(교)	66	54		홍성(교)	32	32
	청송(교)	46	45		계	373	337
	청송2교	38	35	광주청 (6)	광주(교)	57	49
	청송1감	20	14		전주(교)	62	47
	청송2감	37	24		목포(교)	54	47
	부산(교)	58	48		군산(교)	59	45
	마산(교)	59	46		순천(교)	35	35
	김천소년(교)	56	52		장흥(교)	36	33
	진주(교)	47	39		계	303	256

(SD = 1.26번), 여자 수형자들의 평균 징별회수는 .11번(SD = .33번)이었다.

교정 심리검사 문항

일차조사(이수정 등, 2000)에서 1,098문항 중 타당성이 확인되어,⁵⁾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한 본 검

사에 포함되었던 문제유발가능성 척도에는 준거변수와의 유의성⁶⁾ 문항변별도를⁷⁾ 기준으로 선정된 118개의 문항들, 그리고 역시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재범가능성을 측정하는 96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 척도에 모두 포함되었던 중복 문항은 10개였다. 이들 문항들 이외에 응답자들의 반응왜곡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MMPI의 L 척도⁸⁾ 15문항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었다. 모든 문

5) 이차 조사도구에는 외국에서 교도소 내 감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도구 18개 척도가 번역되어 포함되었다. 이들 척도들이 측정하는 심리적 요인들은 범죄성, 비행가능성, 문제유발가능성, 정신증, 재범가능성, 공격성, 불안/우울, 무기력, 소외감, 생활에 대한 기대감, 교도소적응, 처우가능성, 자살가능성, 환상, 가족응집력, 대인성숙, 교도소 내 부적응, 교도

소화 등이었다. 이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수정 등(2000)을 참조하시오.

6) 문제유발가능성의 준거변수는 수형기간 내 징별회수, 재범가능성의 준거변수는 전과회수였다.

7) point biserial correlation을 근거로 문항의 변별도가 .1 이하인 문항들은 일차적인 척도선발에서 제외시켰다.

항들은 예비적인 문항선택 절차에서와는 달리, 응답자들의 반응왜곡 경향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하여, 강제선택형⁸⁾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하위 요인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만성을 측정하는 1척도를 제외한 위험성 척도 204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가시적으로 볼 때, 양 척도의 많은 문항들이 동일한 구성요인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수 문항들은 중복되기까지 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문항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질적인 위험성요인을 추출함으로써, 각 요인별로 수행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그리고 재범행동의 예측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수행자들의 위험성 예측이라는 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단적인 의미를 더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Varimax회전 방법으로 수행된 주축요인분석 결과, 9개의 잠재요인들이 고유치 1을 넘었다. Scree Plot은 이들 중 마지막 세 개의 요인들은 부가적으로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지는 못함을 보여 주었고, 더구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내용도 분명하지 않았기에, 해석이 가능하였던 6개의 요인만을 하위 요인구조로 받아들였다. 이들 중 첫 번째 요인은 수행자들의 위험성향의 총 변산 중 17.56%를 설명하여 주었으며, 둘째 요인은 3.47%를, 셋째 요인은 1.89%를, 넷째 요인은 1.37%를, 다섯째 요인은 1.16%를, 여섯째 요인은 1.11%를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의 고유치는 34.76, 6.68, 3.75, 2.72, 2.29, 그리고 2.21이었으며, 이들 여섯 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26.56%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각 요인들에 있어서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지니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는데, 표 2에는 각 척도의 문항의 예와 통계적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첫째 요인은 비행전력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공격성향, 세 번째 요인은 범죄적 사고, 네 번째 요인은 자포자기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요인은 자살소망을, 마지막 요인은 망상경향을 측정하고 있었다. 27개의 문항들로 정리된 비행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90이었으며,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공격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도 .90, 28문항의 범죄성향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9, 자포자기 척도에는 24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내적 일관성은 .89, 23개 문항들로 구성된 자살성향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9, 마지막으로 22문항들로 구성된 망상경향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7인 것으로 상당히 우수한 신뢰도 지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변수

교정심리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준거가 될 변수로는 응답수행자들의 전과회수와 징벌회수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던 1337명 응답자들의 평균 범수는 1.88번(SD = 1.53번)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징벌회수는 .70번(SD = 1.19번)이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 전과 2범 이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1100명, 전체의 82.3%를 차지하였다. 전과 4범은 54명(4.0%), 전과 5범은 28명(2.1%), 전과 6범은 24명(1.8%), 전과 7범은 11명(.8%), 전과 8범은 12명(.9%), 전과 9범은 4명(.3%) 전과 10범 이상은 8명(.5%)를 차지하였다.

징벌회수의 경우 무징벌자들이 943명(70.5%)으

8) 현 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기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MPI의 1척도를 포함시켰으나, 최종적인 교정분류검사지에서는 기만성 척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것이다.

9) '네', '아니오'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반응양식

표 2.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 문항 예

하위척도 구분	변별도	요인부하량	문 항 의 내 용
비 행 전 력	.64	.64	내 친구 중에는 말썽을 일으켜 경찰관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64	.62	과거에는 전과 있는 친구라든가 범죄조직과 가깝게 지냈다.
	.63	.59	젊었을 때 나는 패싸움을 한 적이 있다.
	.61	.59	학창시절 문제를 일으켜 처벌(근신, 정학, 퇴학 등)을 받은 적이 있다.
	.51	.55	여러 명과 함께 도둑질한 경험이 있다.
공 격 성 향	.55	.53	누가 나에게 언성을 높이면 나도 마주 대고 언성을 높이는 편이다.
	.49	.51	자꾸 귀찮게 구는 사람은 한 대 맞아도 싸다.
	.59	.49	정말 화가 나면 누군가를 갈겨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2	.48	누가 나를 먼저 치면 나도 그에게 한방 먹이겠다.
	.49	.46	말다툼을 할 때 나는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다.
범 죄 적 사 고	.42	.47	큰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53	.46	내게 필요한 유희비나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49	.44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53	.44	살기 힘들만큼 가난하다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
	.41	.41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없고 힘없는 자만 처벌받는 것 같다.
자 포 자 기	.62	.52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다.
	.57	.48	가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58	.48	나는 종종 내가 쓸모 없다고 느낀다.
	.51	.46	내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나에 대해 거의 포기했다.
	.56	.45	차라리 살아있지 않기를 원한다.
자 살 소 망	.63	.61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60	.54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57	.52	자살하게 되면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54	.41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40	.40	나는 내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려 보았다.
망 상 경 향	.46	.41	나도 모르게 괴상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
	.52	.38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47	.37	하루종일 공상이나 환상에 시달린다.
	.52	.37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2	.35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다.

로 가장 많았으며 징벌 1회가 25명(1.9%), 징벌 2회가 258명(19.3%), 징벌 3회가 75명(5.6%), 징벌 4회가 21명(1.6%), 징벌 5회가 9명(.7%), 징벌 6회 이상이 6명(.4%)을 차지하였다.

결 과

하위척도 점수의 표준화

표 3에는 각 하위 척도의 원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의 수, 그리고 신뢰도가 정리되어 있다. 이들 하위척도의 원 점수들은 후속적인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모두 표준점수화 되었다. 표준화시킨 이유는 문항의 수가 다른 하위척도들간의 대등한 비교를 위해서였다. 이때 표준점수는 평균이 50이며,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간 상관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는 .49에서 .73으로 비교적 중간 수준의 상호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상관은 한 개 검사의 하위척도간 비교적 적절한 수준임을 보여주는데, 즉 척도간 상호관련성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음을 반영하여 준다.

표 3. 하위척도의 측정학적 특성

구분	비행 전력	공격 성향	범죄적 사고	자포 자기	자살 소망	망상 경향
평균	8.52 (6.26)	10.87 (6.51)	4.16 (4.73)	4.74 (4.88)	5.86 (5.28)	4.09 (4.34)
문항수	27	28	28	24	23	22
신뢰도	.90	.90	.89	.89	.89	.87

() 안 표준편차

표 4.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

구분	비행 전력	공격 성향	범죄적 사고	자포 자기	자살 소망	망상 경향
비행						
공격	.73					
범죄	.66	.72				
포기	.49	.61	.69			
자살	.51	.61	.60	.69		
망상	.59	.69	.70	.72	.67	

수형기간 내 문제행동과 재범예측치로서의 유용성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각각의 하위척도가 서로 다른 범죄유형 집단의 특징을 변별력있게 반영하는지를 일단 탐색적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본 범의 내용별로 수행된 변량분석은 각각의 차별적인 범죄집단이 여섯 개의 하위척도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죄적 위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는 이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강도, 강간, 폭력범의 범죄성향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더 악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할 수 있듯이, 사기범과 과실범의 경우 강도, 강간이나 폭력범들보다 위험성이 적었으나, 살인범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범죄적 성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의 동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살인의 대부분이 걱정적 동기를 갖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적은 반면에 절도 등은 습관적인 범죄동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이상현, 1994).

표 6은 각 하위척도별 T점수 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첫 번째 세 개의 요인, 비행성($t_{504.36} = 19.45, p < .001$), 공격성($t_{349.78} =$

표 5. 범죄유형별 위험성 하위척도 평균

()안 표준편차

구분	비행전력	공격성향	범죄적 사고	자포자기	자살소망	망상경향
절도	51.61(9.53)	50.79(9.31)	54.08(11.18)	56.12(12.44)	53.68(11.01)	53.14(11.21)
강도	53.79(9.96)	52.40(10.57)	52.62(11.99)	51.82(10.58)	50.95(10.50)	51.58(11.03)
폭력	52.99(10.66)	51.89(10.91)	51.90(12.29)	50.05(10.75)	49.34(10.05)	50.09(10.95)
사기	41.65(6.04)	44.58(8.00)	45.75(6.20)	47.69(8.17)	47.43(7.93)	48.07(7.51)
살인	48.81(9.09)	49.25(9.37)	48.35(7.90)	48.69(8.98)	49.72(9.56)	48.95(9.16)
성	53.42(9.72)	51.84(10.14)	52.00(10.60)	51.54(10.38)	51.14(10.84)	52.01(10.79)
약물	48.92(9.23)	50.94(9.77)	48.69(7.89)	48.00(9.49)	48.88(10.43)	46.95(6.98)
과실	44.42(9.20)	45.72(10.33)	44.64(6.42)	44.05(5.63)	45.26(7.24)	45.18(7.49)
기타	42.97(6.44)	45.43(7.06)	46.26(6.10)	46.22(6.39)	48.81(8.20)	47.09(7.99)
<i>F</i>	29.39	10.63	12.46	9.97	4.24	6.03
<i>p</i>	.000	.000	.000	.000	.000	.000

주. *F* 값의 자유도는 8과 1328이다.

7.22, $p < .001$), 범죄성($t_{434.25} = 6.37$, $p < .001$)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의 동변량성에 대한 Levene의 가정검정에서 표본크기의 현저한 차이로 영가설이 기각되었기에, 자유도를 교정한 *t* 값을, 동변량성을 가정한 *t* 검정치 대신 사용하였다. 이들 세 개 하위척도 상의 남자수형자들의 평균은 비행성이 51.49(SD = 9.95),

공격성이 50.71(SD = 10.18), 범죄성이 50.55(SD = 10.42), 그리고 여자수형자들의 비행성 평균은 42.08(SD = 5.55), 공격성 평균은 46.16(SD = 8.02), 범죄성 평균은 47.04(SD =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포자기 경향과 자살경향, 그리고 망상성향에서는 특이한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척도들로 재구성된 수형자용 심리검사도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에서 선별된 일차적인 문항들로부터 문제유발가능성 총점, 그리고 재범예측가능성 총점을 산출하였다. 일차적인 문항들의 선정기준이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자료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지가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우선 징벌회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항선정 작업에 의해 선택된 문항들의 총점은 총 변량의 약 11.2%에 달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예언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상관계수는 .34로, 일반적으로 수능시험이 대학교에

표 6. 성별 위험성 하위척도 평균 ()안 표준편차

구분	비행	공격	범죄	포기	자살	망상
남성	51.49 (9.95)	50.71 (10.18)	50.55 (10.42)	50.01 (10.20)	50.11 (10.21)	50.15 (10.35)
여성	42.08 (5.55)	46.16 (8.02)	47.04 (6.61)	49.91 (8.88)	49.43 (8.80)	49.17 (7.82)
<i>F</i>	178.30	37.71	22.23	.02	.82	1.71
<i>p</i>	.000	.000	.000	.897	.364	.191

주. *F* 값의 자유도는 1과 1335이다.

서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정도보다 훨씬 높은 예언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유발가능성이 징벌회수를 예측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4로 이에 대한 t 값은 12.97이었다. 이는 유의도 .001수준에서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유발가능성이 전국 표본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의 설명력을 확보하는데 비해 재범가능성 총점은 전과회수를 예측함에 있어 예비조사에서보다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의 총 분산 중 재범가능성 척도의 설명량은 약 6.8%에 이르렀는데 통계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의 설명력도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회귀모델의 F 값은 97.28이며 이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1이었고 이에 대한 t 값은 9.86으로 이 역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기존의 인성검사(MMPI)와 교정심리검사의 비교

수형자들의 심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정장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검사로 MMPI(다면적 인성검사)를 들 수 있다. MMPI의 하위척도들에 비하여 예비조사에서 개발된 문제유발 가능성 척도가 수형기간 동안의 위험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지니게 되는 상대적인 설명력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MPI의 하위척도들(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과 문제유발가능성 점수를 일단 표준화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회귀분석하여 본 결과, 문제유발가능성 총점만이 회귀모형의 예측변수로 포함되어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상대적인 효과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F(1, 1335) = 168.23, p < .001$.

만일 MMPI의 하위척도를 일단계 회귀모델에 포함시키고 문제유발 가능성 총점을 이단계 회귀모델에 포함시킨다면 수형기간내 문제행동의 총 분산 중 약 2.1%가 정신증, $F(1, 1335) = 23.97, p < .001$, 및 경조증, $F(1, 1334) = 4.11, p < .05$, 척도에 의하여 설명되고 부가적으로 11.9%의 분산이 문제유발가능성 총점으로 더 설명되었다, $F(1, 1333) = 151.31, p < .001$. 이들 각각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정신증의 경우 $.11(t = 3.32, p < .001)$, 경조증의 경우 $-.10(t = -3.05, p < .01)$, 문제유발 총점의 경우 $.33(t = 12.30, p < .001)$ 이었다.

MMPI의 수많은 척도들이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역시 수형기간 중 징벌회수의 2% 남짓한 분산만을 설명하는 것에 비하여 문제유발 총점은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은 비록 비수형자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표본을 대상으로도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문제유발 가능성 척도의 점수가 타당한 예측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범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재범가능성 척도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MPI 하위척도들과 재범가능성 총점을 예측변수로 하여 또 한번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단계적 방식으로 수행된 회귀분석 결과 재범가능성 총점과 경조증이 수형자들의 범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인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수들이 포함된 회귀모형의 통계치는 .001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며, 설명력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333) = 97.28$. 범수에 대한 재범가능성 총점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7(t = 10.24, p < .001)$, 경조증 점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8(t = -3.14, p < .05)$ 이었다.

MMPI의 하위척도들이 지니는 설명력에 부가적으로 향상된 재범가능성 총점의 설명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또 한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재범가능성만이 회귀모델에 포함되었는바, 이 모델의 통계치는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6.7%였다, $F(1, 1333) = 97.28, p < .001$. 이때 재범가능성 총점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9.86, p < .001$).

하위척도의 설명력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문제가능성 척도와 재범가능성 척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위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략 6개의 해석 가능한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총점만을 산출하여 문제성향이나 재범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수도 있겠으나,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하위척도들에서 나타난 행동양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준다면, 수형자들의 행동양식에 대해 좀더 많은 양의 진단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하위 척도들이 준거행동으로 채택된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과 재범여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했다.

우선 여섯 가지 위험성 요인들이 징벌회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하위척도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대로 징벌회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표준점수화된 하위척도 점수들 중 비행전력과 자포자기, 그리고 범죄적 사고가 가장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개의 변수가 예측변수로 포함된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31) = 67.01, p < .001$. 비행전력은 징벌회수 중 11.2%의 변산을 설명하였으며, 자포자기는 1.5%의 변산을 부가적으로 더, 그리고 범죄적 사고는 0.4%의 변산을 더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회수는 $-1.78 + .03(\text{비행전력}) + .01(\text{자포자기}) + .01(\text{범죄적 사고})$ 로 추정되었다.

수형자들의 반응왜곡 경향을 고려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세 요인들이 징벌회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만척도 상에서 정상의 범주를 훨씬 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기만성향을 변별하여 주는 지표는 원점수 12를 기준으로 하였다. Swenson, Pearson과 Osbourne (1973)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보고한 L척도의 분포에 따르면 상위 0.5%의 응답자들이 12점 이상의 기만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표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약 18.6%에 해당하였다.

표 7. 징벌회수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1.78	.18		-9.87***			
비행전력	.03	.00	.22	6.44***	.11	.11	167.72***
자포자기	.01	.00	.09	2.61**	.13	.02	23.35***
범죄적 사고	.01	.01	.10	2.52*	.13	.00	6.37*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분석 결과, 기만성향이 12점 이하였던 수형자들의 징벌회수를 잘 예측하여 주는 변수는 비행전력과 자포자기였다. 이들 두 변수가 포함된 회귀모델은 통계적인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F(2, 1083) = 66.89, p < .001$. 이들 각각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비행전력이 .28 ($t = 8.76, p < .001$), 자포자기는 .10 ($t = 3.26, p < .01$)였다. 수형자들의 반응왜곡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비행전력은 징벌회수의 약 10%의 변산을 설명하여 주었으며, $F(1, 1084) = 122.08, p < .001$, 자포자기는 약 1%의 변산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083) = 10.61, p < .01$.

기만성향이 높은 수형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적 사고가 징벌회수를 설명하여 주는 유일한 변수로 채택되었는데 총 변산의 16%가 범죄적 사고만으로 설명되었고, $F(1, 247) = 48.54, p < .001$ 범죄적 사고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41로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였다($t = 6.97, p < .001$).

재범의 주요한 주거지표인 범수를 예측하여 주는 위험성 요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는 응답자들의 성별이나 반응경향성에 관계없이 전체 표본에서 산출된 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여섯 개의 위험성 요인 중 자살소망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의 요인들은 수형자들의 전과에 대하여 약 12%의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다섯 개의 요인을 예측인자로 한 회귀모델은 통계적인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F(5, 1329) = 38.41, p < .001$. 수형자들은 자포자기할수록, $F(1, 1333) = 143.63, p < .001$, 비행행동에 연루된 적이 많을수록 $F(1, 1331) = 9.27, p < .01$, 범죄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F(1, 1329) = 5.33, p < .05$, 재범을 많이 저질렀으며, 높은 공격성이나 망상경향은 재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향의 경우 현재 분석에 포함되었던 전국표본에는 사기나 과실범처럼 군이 개인의 공격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수형자들의 범수와 현재와 같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역시 응답자들의 반응왜곡 경향을 주요한 분류지표로 하여 다시 한 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만경향이 낮은 수형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되었던, 자포자기, 망상경향, 비행전력, 공격성향, 범죄적 사고 중에서 징벌회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적 사고가 회귀모델에 포함되지 않

표 8. 범수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39	.24		-1.65*			
자포자기	.06	.01	.41	10.33***	.10	.10	143.63***
망상경향	-.03	.01	-.21	-4.96***	.11	.02	23.04**
비행전력	.02	.01	.12	3.17**	.12	.01	9.27*
공격성향	-.02	.01	-.13	-2.97**	.12	.00	6.09*
범죄적 사고	.02	.01	.10	2.31*	.12	.00	5.33*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징벌회수에 대한 MMPI 요인과 위험성 요인의 상대적 설명력 비교

구 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1.59	.20		-8.08***			
정신증(MMPI)	.01	.00	.13	3.90***	.02	.02	23.86***
경조증(MMPI)	-.01	.00	-.12	-3.59***	.02	.00	4.14*
비행전력	.03	.00	.25	7.07***	.13	.11	163.60***
범죄적 사고	.02	.00	.14	4.03***	.13	.01	16.21***

* $p < .05$ ** $p < .01$ *** $p < .001$

았다. 범죄적 사고를 제외한 네 개의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는 범수의 변산은 약 1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 1081) = 37.07$, $p < .001$. 각 변수가 지니는 재범율과의 관련성은 표 9와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만성향(L척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수형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포자기, 망상경향, 범죄적 사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세 개 변수가 설명하여 주는 수형자들의 재범율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만성향이 높은 수형자들은 자포자기 경향이 높을수록($\beta = .45$, $t = 5.08$, $p < .001$), 망상경향이 낮을수록($\beta = -.38$, $t = -3.92$, $p < .001$), 범죄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beta = .21$, $t = 2.37$, $p < .05$) 재범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인성검사, MMPI의 하위 척도들에 비하여 위험성 요인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산을 설명하여 주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탐색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MMPI의 하위 척도 중에서는 정신증이 높을수록 경조증이 낮을수록 수형기간 동안 문제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았으나, 이들 두 변수가 징벌회수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설명량 중 약 2%에 지나지 않았다. 위험성 척도의 하

위요인이었던 비행성과 범죄적 성향은 약 12%의 변산을 더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표 9).

회귀분석의 결과 MMPI 하위척도에 비해 위험성 요인들이 지니는 설명력에 있어서의 우세함은 범수를 예측함에 있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단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던 MMPI 하위 척도들은 모두 회귀모델에서 빠진 데 비하여, 위험성요인들 중 표 9에서 보고된 다섯 개의 위험성 요인은 수형자들의 재범율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일 단계에서 모든 변수가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단계의 위계적 회귀모형에서는 표 8과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징벌자들을 변별해내는데 있어서 위험성 요인들의 검증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습관적인 징벌자의 선별은 두 번 이상 징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판별 분석 결과는 여섯 개의 위험성 요인이 과연 습관적인 징벌자들을 잘 변별하여 주는지, 그리고 이들 간에 내재한 수리적 관련성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여섯 개의 위험성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나의 정준판별함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6 = 226.88, p < .001$). 이 함수의 고유값은 .19였다. 표 10에는 각 위험성 요인 상에서 각 준거 집단의 평균 점수들과, 이들 변수들이 지니는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상의 계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상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비행성과 범죄성, 그리고 자포자기의 경향이 습관적인 징벌자들을 가려내는 데에 매우 변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함수 상에서 습관적인 징벌자 집단은 .697의 값을 지녔으며, 징벌을 받지 않거나 한 번 정도 징벌받은 수형자 집단은 -.266의 값을 지녔다. 이렇게 산출된 정준판별함수의 문제행동의 상습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은 약 7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전과자들을 변별해내는 데에 있어서 위험성 요인들의 검증력도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또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습 전과자의 변별은 두 번 이상 전과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었다. 여섯 개의 위험성 요인들은 상습적인 전과자들을 변별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나의 정준판별 함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6 = 153.68, p < .001$). 이 함수는 .12의 고유치

를 지녔다. 표 11에는 각 위험성 요인 상에서 두 개의 준거집단이 지니는 평균 점수들과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 상에서 각 위험성 요인들이 지니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함수 상에서 상습 전과자 집단은 .40의 값을 지녔으며, 일반 전과자들은 -.30의 값을 지녔다. 상습적인 재범에 대한 이 정준판별함수의 예측력, 즉 원래 상습적인 전과자였던 사람들을 정준판별함수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다시 상습 전과자로 분류될 비율과 일반 수형자를 예측해 낼 비율은 약 6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정리된 위험성 척도는 수형기간 내 문제행동과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서 비교적 유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상습적인 징벌자와 일반 수형자, 그리고 상습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들의 표준화된 문제유발 점수 평균과 표준화된 재범가능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들 평균들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된 문제유발 점수에 대한 징벌의 상습성 변수의 에타는 .36, 그리고 표준화된 재범가능성 점수에 대한 전과의 상습성 변수가 지니는 에타는 .27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상습적인 징벌집단의 평균 문제행

표 10. 습관성 징벌자와 일반 수형자의 위험성 요인 평균과 정준 판별함수 계수

구분	일반 수형자	습관성 징벌자	정준판별 계수
비행전력	47.78(9.16)	55.89(9.72)	.67
공격성향	48.15(9.00)	54.88(10.84)	-.11
범죄적 사고	47.94(7.75)	55.42(12.82)	.25
자포자기	48.11(8.23)	54.96(12.30)	.37
자살소망	48.43(8.53)	54.17(12.16)	-.02
망상경향	48.22(8.26)	54.70(12.38)	-.00

표 11. 상습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의 위험성 요인 평균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구분	일반 전과자	습관성 전과자	정준판별 계수
비행성	47.95(9.45)	52.78(10.05)	.63
공격성	48.54(9.49)	51.97(10.34)	-.40
범죄성	47.80(7.88)	52.96(11.64)	.46
자포자기	47.67(8.21)	53.11(11.27)	.86
자살경향	48.58(8.95)	51.94(10.96)	-.13
망상경향	48.61(8.98)	51.89(10.9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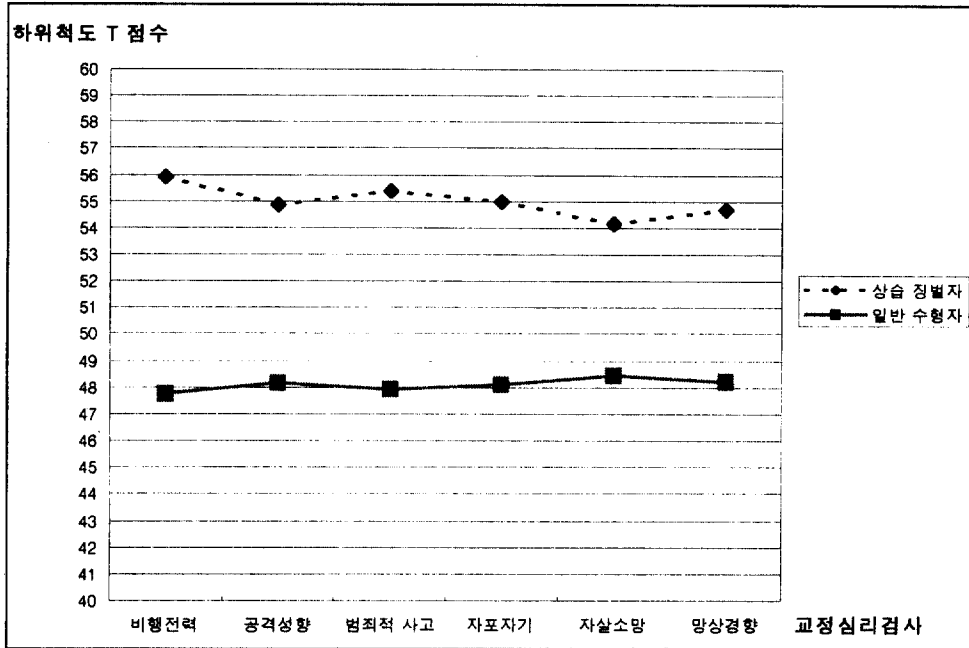


그림 1. 상습 정범자와 일반수형자들의 평균 교정심리검사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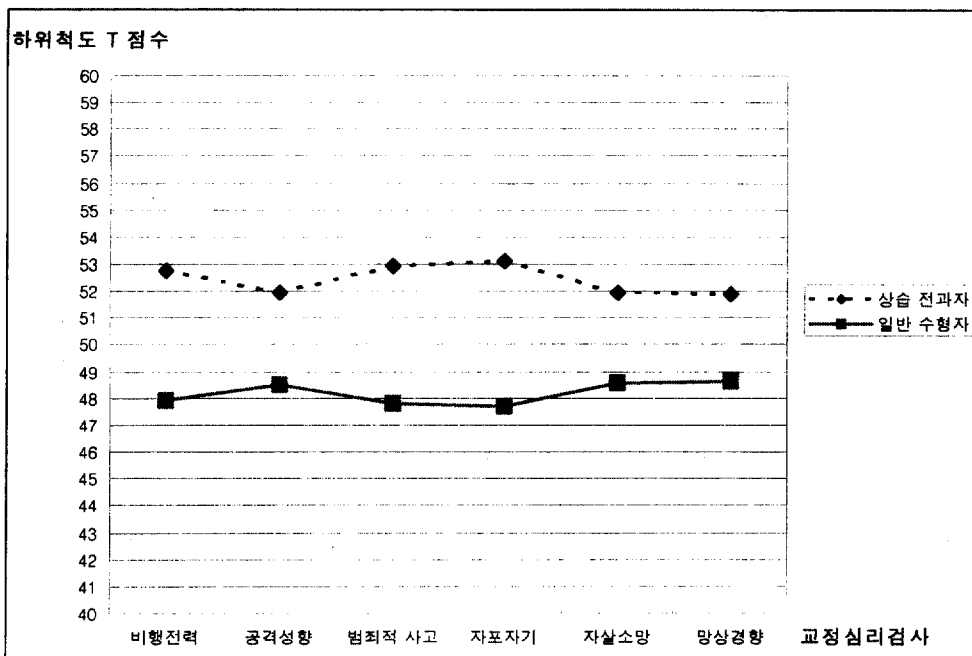


그림 2. 상습 전과자와 일반수형자들의 평균 교정심리검사 표준점수

동 가능성 표준점수는 55.81($SD = 11.26$)였으며, 일반 수형자들의 평균 문제행동가능성 표준점수는 47.47($SD = 8.49$)이었다.

상습적인 전과자 집단의 평균 재범가능성 표준점수는 53.08 ($SD = 11.24$)였으며 일반 전과자들의 평균 재범가능성 표준점수는 47.69 ($SD = 8.25$)이었다. 그림 2에는 전과 이 범 이상의 수형자들과 일반수형자들의 교정심리검사에 있어서의 평균점수들이 도식화되어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하위 척도 상에서 문제유발 집단과 재범위험 집단들은 현저한 표준점수 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시 금 판별분석으로부터의 결론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현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심리측정학적인 도구가 수형자들의 위험소양을 예측함에 있어서 타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재검하여 준다.

논 의

지금까지 수형자들의 문제행동 예측가능성 및 재범예측가능성 척도의 개발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 중 30여 개 기관에 수용 중인 1,500명의 수형자를 표본으로 수형자용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수정 등(2000)의 일 단계 문당선정 작업에서 선별된 문제행동 유발가능성을 예측하는 문항 118개와 재범가능성 문항 96개, 합쳐서 204문항은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결과 152문항으로 더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

둘째, 최종 확정된 152문항에 대한 부가적인 요인분석 결과, 6개의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들은 비행성요인, 공격성요인,

범죄성요인, 자포자기요인, 자살경향성요인, 망상요인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이들 여섯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수형자들의 위험성향은 총 26.56%인 것으로 산출되었고 이들 여섯 요인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형자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종전에 주로 상용하던 MMPI의 하위척도들과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6개 위험성 요인을 비교한 결과 수형자의 문제행동유발 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MMPI의 하위척도 중 정신증(Sc)과 경조증(Ma)이 약 2%의 설명력만을 지니는 데 비해 본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의 하위척도들 중 비행성과 범죄성은 약 12%의 변산을 더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형자들의 문제행동유발 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함을 검증해 보이고 있다.

넷째,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로 수형자들 중에서 습관적인 정벌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검증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분석으로 알아 본 결과, 전체 수형집단에서 상습적인 문제행동유발자와 안전수감자들을 정확히 변별할 수 있는 정도가 약 75.2%에 달했다.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현행 교정처우제도에 지니는 시사점은 상당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제시된 몇 가지 사안은 이와 같은 측정방안이 실용화되기 위하여 꼭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수형자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객관적인 범죄관련 자료의 분석, 그리고 수형자의 환경적인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가 종전의 분류방식보다 좀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지필검사의 양식은 응답자들의 반응경향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형화된 상담관찰표를 작성하여 측

정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개인의 전과자료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한다면, 수형자들의 개인적인 범죄특성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범죄성향 측정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우선 초기의 분류심사단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적인 범죄관련 변인들과 심리학적 특성들을 관찰하고, 다음으로 수감과정 중 이루어지는 재심사 단계에서 처우관련 변인, 상담자의 관찰견해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형의 초기 심사절차에서 수형자들의 문제유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진단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서는 출소예정자의 재범가능성을 관찰해 보아야 한다. 타당도의 근거자료가 될 이들 증거들은 조사대상자들의 출소 후 재범 여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후 조사해야만 수집될 수 있다.

셋째, 본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를 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하위 척도의 점수를 표준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분포까지도 표준화작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현 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별로 미리 할당 표집되었던 것이 아니기에, 이들 요인들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점수를 표준화해야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별이나 연령 이외에 죄명이나 수형기간, 그리고 문제유발 기간도 표본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이들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화를 위한 대표 표집을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수형자용 심리검사 도구가 이와 같은 단계 작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수형자들의 범죄성

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치더라도, 만일 서로 다른 진단 분류에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은 선별작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도구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한 교정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비행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수형자들에게는 가치관교육과 행동치료를, 망상경향이 높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MMPI를 실시하여 좀더 세분화된 진단과 나아가 정신요양을, 정상 이상의 공격성향을 보이게 되면 감정조절과 표현훈련을, 범죄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준법교육을 차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와 같은 교정프로그램의 실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화된 접근을 시행하여야만 교화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는 전제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앞으로는 보다 전문화된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연구 2: 교정심리검사와 범죄관련 요인으로부터 분류심사 방안 개발

연구 1에서는 교정심리검사의 문항들을 제작하여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표준화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교정심리검사는 상당한 신뢰도 및 타당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는 개인의 심리적 지표 이외에 신입심사 시 수거된 개별 수형자들의 범죄관련 변수들 중에서 수형기간 동안의 위험행동과 재범을 예측하기에 유용한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심사의 범죄관련 변

표 12. 미연방 가석방 지침(Federal Parole Guideline)

항목 A :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없음	= 3
	한번	= 2
	두 번 혹은 세 번	= 1
	네 번 이상	= 0
항목 B : 30일 구류 이상의 형이 집행된 전력.	없음	= 2
	한번 혹은 두 번	= 1
	세 번 이상	= 0
항목 C : 최근 범행 당시의 나이.	26세 이상	= 2
	20~25세	= 1
	19세 이하	= 0
항목 D : 현재의 범행 전에 범죄 없이 지낸 기간.	30일 구류 이상의	
	범행 없이 3년	= 1
	그 외	= 0
항목 E : 현재 집행유예/가석방/연금 규칙을 어기거나 탈옥시도가 병합하는 지의 여부.	없음	= 1
	있음	= 0
항목 F : 마약중독의 전력.	없음	= 1
	있음	= 0

박광배(1994) 재인용

수들은 미국 교정국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법무부, 1999).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 범죄관련 변수들은 1970년대 미연방 교정국을 필두로 캘리포니아주 교정국과 국립교정연구소에 의해 조사되어 Monahan과 Walker(1985)에 의해 후에 체계화되었다. 현재 징역 기간과 가석방의 결정에 준거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범죄관련 변수들은,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30일 구류 이상의 형이 집행된 경력, 가장 최근의 범행 당시의 나이, 현재의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간, 현재 집행유예/가석방/연금규칙을 어기거나 탈옥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마약중독 전력 등이다. 표 12에는 이들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현 연구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형자들의 세분화된 분류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MMPI를 대체하게 될 교정심리검사, 그리고 교정상담관들의 전문가로서의 판단,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들이 예측변수로서 사용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타당도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 현행 분류심사 지침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통계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입증된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앞에서 지적된 책임점수의 산정에 혼입을 야기하였던 관리급과 개선급을 따로이 분리시킴으로써, 실제로 범죄적 성향이 농후한 자와 수용시설에서의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할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본 범 내용에만 국

한되어 적용되는 처우방안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될 것이다. 세분화된 분류심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문제중심적 처우방안의 고안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현행 분류지침 중 수형자들의 범죄성향에 대한 판단은 개선급이, 관리상의 문제는 관리급이 대변하고 있다. 이들 주요한 두 기준에 의하여 수용시설이 결정된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변수들, 수형자의 개인적인 특성들, 그리고 심리 측정된 범죄적 기질, 교도관들의 판단결과를 토대로 이들 두 처우지표를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고안할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분석에 포함된 표본대상은 전국 교정국에서 할당 표집된 남자수형자들 1,126명이었다. 이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던 자들은 현 연구에 포함되었던 범죄관련 변수들을 모두 갖고 있고, 연구 1에서 개발된 기만성 척도 상에서 13 점을 넘지 않는 수형자들로서 이들의 수는 917명(81.44%)이었다.

응답한 수형자들 중 1급수는 12.6%, 2급수는 17.1%, 3급수는 33.2%, 징벌자는 17.2%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범 내용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해 본 결과 6명(8.3%)이 절도범이었으며, 192명이 강도범(20.9%), 폭력범이 93명(10.1%), 사기범이 25명(2.7%), 살인범이 275명(30.0%), 강도강간범이 181명(19.7%), 약물관련 범법자가 20명(2.2%), 과실범이 27명(2.9%), 마지막으로 공안사범 등 기타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28명(3.0%) 있었다. 살인범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고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형기

는 135.5개월($SD = 21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던 응답자들의 평균 범수는 1.82번($SD = 1.37$)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징벌회수는 .63번($SD = 1.10$)이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 전과 1범(본 범 포함)은 56.5%, 전과 2범은 26.5%를 차지하였다. 전과 3범 이상 되는 응답자의 비율은 17.0%였다.

징벌회수의 경우 무징벌자들이 668명(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벌 1회가 3명(3%), 징벌 2회가 180명(19.6%), 징벌 3회가 51명(5.6%), 징벌 4회가 12명(1.3%), 징벌 5회가 1명(1%), 징벌 6회 이상이 2명(2%)를 차지하였다. 표 13에는 이들 변수들의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

측정변수

교정심리검사

수형자들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교정심리검사를 이용하였다. 주축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통하여 비행전력을 측정하고 있는 첫째 요인, 공격성향을 측정하는 둘째 요인, 범죄적인 사고경향을 측정하는 셋째 요인, 자포자기 경향을 측정하는 넷째 요인, 자살소망을 측정하는 다섯째 요인, 마지막으로 망상경향을 측정하는 여섯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여섯 개의 요인들이 수형자의 징벌가능성을 설명하여주는 정도는 총 분산의 약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MMPI의 하위척도로 설명할 수 있는 징벌가능성의 정도가 약 2%에 지나지 않음에 비교하여 보면 비교적 설명력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만성향을 묻는 일곱 번째 척도가 교정심리검사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 점수 13점 이상을 기록한 자료는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자료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특성(N = 917)

특성	구 분	빈도(%) 및 평균(표준편차)
나이	20세-29세	385(42.0%)
	30세-39세	353(38.5%)
	40세-49세	147(16.0%)
	50세-59세	27(3.0%)
	60세-69세	5(.01%)
본 범 내용별	절도범	76(8.3%)
	강도범	192(20.9%)
	폭력범	93(10.1%)
	사기범	25(2.7%)
	살인범	275(30.0%)
	강도강간범	181(19.7%)
	약물관련 범범자	20(2.2%)
	과실범	27(2.9%)
	기타범죄(공안사범 등)	28(3.0%)
평균 형기	전체 평균(표준편차)	135.5개월(214.39)
평균 범수	전체 평균(표준편차)	1.82번(1.37)
평균 징벌회수	평균(표준편차)	.63번(1.10)

교정상담 점수

수형자들의 문제행동 가능성 및 범죄성향의 측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또 다른 심리측정치들은 담당 교정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별 수형자들의 담당 교도관은 신입 및 정기심사 때 수형자들의 상담태도 및 문제가능성에 대하여 각기 4문항씩 총 8문항에 대답하여야 한다. 우선 형벌에 대한 수형자들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 처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도관에 대한 태도에 대해 4점 척도 상에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유발 가능성, 재비행가능성, 위선행동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상담태도도 4점 척도 상에 판단하여야 한다. 이 모든 문항들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이거나

매우 양호하면 1점, 긍정적이거나 양호하면 2점, 부정적이거나 불량하면 3점 매우 부정적이거나 매우 불량하면 4점이라 응답하게 된다.

이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85로 상당히 일관성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총점을 산출하여 표준점수화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14에는 분류심사 시 조사되는 교도관 상담문항의 내용과 이들의 변별도 지표, 그리고 문항 제외 시 내적 신뢰도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전과관련 사항

수형자들의 전과관련 변수로는 경찰청으로부터

표 14. 교정상담 문항

	문항변별도	제외 시 내적 신뢰도 지수
형벌에 대한 태도	.46	.85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	.37	.85
처우에 대한 태도	.51	.84
직원에 대한 태도	.60	.84
문제유발 가능성	.77	.81
재비행 가능성	.75	.82
위선행동 가능성	.67	.83
상담에 임하는 태도	.64	.83

수거된 범수와 본인이 응답한 전과관련 변수들이 있었다. 전과관련 변수들은 우선 최초 경찰입건 연령, 모든 범법행위 건수, 보호시설 총 수용기간,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전 수용기간 동안의 징벌 건수, 재범기간 등이었다.

표본에 포함되었던 남자수형자들의 최소가 1범(본 범), 최대가 10범이었으며 평균 범수는 1.82(1.37)회, 최초 경찰입건 연령은 10세에서 56세였고, 본인이 응답한 모든 범법행위 건수는 0건에서 14건까지였다. 소년원에서의 평균 수용기간은 2.95(12.39)개월이었으며, 교정시설 평균 수용기간은 24.23(46.81)개월이었다. 수용 중 징벌횟수는 0회에서 10회까지로 평균 .38(1.05)회, 재범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12개월까지로 평균 13.81(30.01)개월이었다.

본 범 관련 사항

우선 본 범의 내용은 79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살인관련 범죄로는 살인(14.9%), 살인 미수(1.3%), 살인 교사(1%), 자살 교사 방조(1%), 강도살인(6%), 그리고 존속관련 범죄로는 존속살해(7%), 존

속살해(1%), 존속상해치사(3%), 상습 존속폭행(2%), 성 관련 범죄로는 성폭력(9.4%), 강간(4%), 강간 미수(0%), 강간 치상(3.1%), 강도·강간(3.9%), 강도·강간 미수(5%), 특수 강간(4%), 특가법(강간) 위반(2%), 강제 추행(0%), 강제 추행 치상(0%),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1%), 미성년자 추행(1%) 등이 있었다. 약취와 유인 관련 범죄는 약취·유인(8%), 영리목적 약취·유인(2%), 미성년자 유인(1%), 강도 범죄로는 강도(5%), 강도 미수(1%), 강도 상해(11.8%), 특가법(강도) 위반(3.9%), 강도 치상(1%), 강도 치사(8%), 특수 강도(2.9%), 특수 강도 미수(2%), 준 특수 강도(1%), 절도 관련 범죄로는 절도(1.4%), 절도 미수(1%), 특가법(절도) 위반(4.9%), 특수 절도(1.4%), 특수 절도 미수(0%), 야간 주거침입 절도(5%) 등으로 구분되었다. 약물관련 범죄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2.1%), 대마 관리법 위반(2%), 특가법(마약) 위반(1%), 폭력범죄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8.4%) 등이 있었고, 사기범죄로는 사기(9%), 상습 사기(2%), 특경법(사기) 위반(1%), 등이 있었다. 뇌물범죄는 특가법(뇌물) 위반(0%), 뇌물 공여(1%), 공무원 집행 방해죄는 공무원 집행 방해(0%), 공무원 집행 방해 치사상(0%), 특수 공무원집행 방해(1%), 특수 공무원집행 방해 치사상(1%), 방화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3%),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2%), 그리고 횡령·배임죄는 횡령(1%), 업무상 횡령(1%), 특경법(횡령) 위반(0%), 배임(1%)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외 교통관련 범죄로 도주차량(2.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2%), 도로교통 법규 위반(1%), 군관련 범죄로는 항명(1.4%), 상관살해(1%), 근무 이탈(2%), 전투경찰 설치법 위반(2%) 등이 있었고, 문서위조 범죄로는 공문서 위조(2%), 상해범죄로는 상해(1%), 상해·치사(2.1%), 상해·치사·교사(1%), 학대 치상(1%)이 있었고 기타 과실치사(1%),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4%), 특가법(관세) 위반(0%), 아동복지법 위반(0%), 특수 도주(.1%), 자동차 관리법 위반(.1%), 주거침입(.1%), 폭행치사죄(.3%) 등이 있었다.

이들 본 범 내용은 중형이나 아니나에 의하여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후속적인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인이나 치사는 가장 중한 범죄유형으로 상해 및 상해 가능범죄는 그 다음 중한 범죄로, 나머지 사기죄 등 경계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들은 따로이 구분하였다. 이 같은 구분은 미국의 범행의 심각성 지표인 특징요인 점수(Galegher & Carroll, 1983)를 참조하였다.

이 외 본 범 관련 사항은 개월 수로 환산된 형기, 범죄의 동기(고의, 우발, 과실), 흉기사용 여부(소지 사용, 미소지 사용, 미사용), 합의 여부(미합의, 일부 합의, 합의), 검거 유형(체포, 자수), 공범 여부, 미결 시 생활태도(매우 불량, 불량, 양호, 매우 양호) 등이 있었다.

수형기간 중의 징벌은 그 횟수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현 표본의 평균 징벌횟수는 .63번(0)이었고 징벌을 받은 내용을 분류하여 본 결과 표 15와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이들 징벌내용에 대하여서는 교도관들이 그 심각성의 여부를 0점에서 3점까지로 평정하였다.

기타 변수

본인의 응답을 토대로 기타 일상생활 사항과 직업 사항, 그리고 보호자 관련 사항들이 수집되었다. 우선 출생지, 현 거주지, 취미, 종교, 병역관계, 최종 학력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고, 가출경력, 약물경력, 음주경력, 문신사실, 자해경력, 성기변형 유무를 물었다. 그리고 입소하기 직전 근무연한과 월수입, 직업 내용, 기술자격 취득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가족관계와 출생순서와 월별 접견 회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력의 경우 무학이 13명, 초등학교 중퇴가 22명으로 전체의 4.7%였고 초등학교 졸업이 62명(6.8%), 중학교 중퇴가 164명(17.9%), 중학교 졸업이 107명(11.7%)였다. 고등학교 재학 및 중퇴는 155명(16.9%), 고등학교 졸업은 306명(33.4%)였다. 전문대 재학, 중퇴와 졸업은 13명(1.4%),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은 54명(5.9%), 대학원 이상은 1명(.1%)이었다.

총 917명의 남자수형자들 중 가출경력이 있는 사람은 351명(38.3%), 약물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68명(18.3%),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775명(84.5%), 문신이 있는 사람은 523명(56.9%), 자해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36명(14.8%), 성기를 변형한 사람은 229명(25.0%), 조직에 가담한 사람은 77명(8.4%)였다.

응답자들 중 양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사람은 440명 (48.0%), 편모나 편부만 있는 사람은 332명 (36.2%), 결혼상태인 사람은 197명(21.5%),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228명(24.9%)이었다. 입소하기 직전의 근무 연한은 평균 2.42개월($SD = 1.15$ 개월)이었고, 평균 월수입은 139만원($SD = 213$ 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접견횟수는 2.04회($SD = 1.85$ 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현 연구에서 궁극적인 준거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변수는 징벌사실과 전과 및 본 범 사항이었다. 즉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의 유발가능성의 준거로는 징벌사실을 준거지표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징벌과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급 산정의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반면 개선금은 범죄성향의 잣대였기에 수형자들의 전과내용을 준거지표로 하여 수형자들의 과거 범죄와 현재 범행을 결

정하여 주는 지표들이 무엇들이 있을지 탐색하였다. 또한 본 범 내용 역시 수형자들의 범법성향을 알려주는 준거가 되기에 본 범의 내용을 결정하여 주는 인자들은 무엇이 있는지가 조사되었다. 이들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범죄 관련 변수들은 서로 점수의 범위가 달랐기에 이를 보완하여 주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예측변수들을 선별하였다.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변수 탐색

우선 관리상 문제의 지표는 징벌의 횟수와 징벌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각 수형자들이 징벌을 받은 횟수와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징벌 내용(표 15)의 위법성 여부를 교도관들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후 징벌의 횟수와 징벌내용의 심각성을 예측하여 주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징벌내용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6에, 징벌횟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징벌사유의 심각성을 예측하여 주는 지표로는 미결 시의 생활태도($\beta = .34, p < .001$)와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beta = .27, p < .001$)가 가장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도관들의 상담결과($\beta = .17, p < .001$)와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beta = .12, p < .001$)가 주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급 산정 시 수형자들의 자해가능성을 사전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부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던 변수로는 학력과 접견횟수, 그리고 본 범 내용 중 범죄의 동기와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들의 관심이 없을수록 징벌을 받게 되는 사유가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본 범 내용의 의도적이고 합의가 불가능한 수형자들이 더 위험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수형자들의 징벌사유

징벌사유	빈도	확률
해당사항 없음	670	73.1%
싸움 폭행	92	10.0%
교도관 지시 및 입실 거부	47	5.1%
소란 난동 예비음모	19	2.1%
교도관 폭행 협박	3	.3%
추행 음란행위	3	.3%
금품 갈취 공갈	1	.1%
신입자 회롱 폭행 협박	1	.1%
금품요구 가혹행위	1	.1%
안면방해	0	0%
외래인 모욕언동	0	0%
음주 흡연 담배소지	14	1.5%
부정 물품 제작 은닉	9	1.0%
부정 물품 교환 수수	4	.4%
관급품 파괴 훼손	4	.4%
계구 해탈 손괴	2	.2%
금품 소지 은닉	0	0%
인화물질 소지 은닉	0	0%
급여품 변경 손괴	0	0%
작업기계 손괴 낭비	0	0%
부정도서 반입 열독	0	0%
자살 자해 문신행위	7	.8%
단식	1	.1%
작업거부	10	1.1%
고성방가	0	0%
부정연락	9	1.0%
밀회 밀담	3	.3%
도박	5	.5%
허위 사실 신고	0	0%
지정 장소 이탈	1	.1%
자리 이탈 수면	0	0%
번호 미부착	0	0%
기타 관규위반	11	1.2%

표 16. 징벌내용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85	.23		-3.76***			
미결 시 생활태도	.69	.06	.34	11.46***	.23	.230	273.91***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28	.03	.27	9.62***	.33	.099	226.92***
T 상담	.02	.00	.17	5.95***	.36	.022	167.58***
자해경력	.36	.08	.12	4.34***	.37	.019	136.16***
범죄동기	-.23	.06	-.10	-3.89***	.38	.009	113.45***
최종 학력	-.03	.01	-.08	-2.78**	.39	.008	98.56***
월 평균 접견횟수	-.05	.02	-.08	-3.02**	.40	.005	85.81***
가출경력	.16	.06	.07	2.66**	.40	.004	76.45***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08	.04	-.06	-2.35*	.41	.003	68.91***

* $p < .05$ ** $p < .01$ *** $p < .001$

표 17. 징벌횟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1.06	.29		-3.70***			
미결 시 생활태도	.76	.07	.35	11.43***	.22	.220	256.79***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22	.03	.20	6.95***	.29	.066	183.04***
자해경력	.32	.09	.10	3.43***	.31	.019	133.36***
T 상담	.002	.00	.14	4.67***	.32	.015	106.95***
범죄동기	-.279	.07	-.12	-4.23***	.33	.013	90.72***
가출경력	.181	.07	.08	2.67**	.34	.009	78.64***
월 평균 접견횟수	-.005	.02	-.08	-2.73**	.35	.006	69.20***
최종 학력	-.003	.01	-.07	-2.30*	.35	.004	61.50***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01	.04	-.07	-2.44*	.36	.004	55.59***
T 망상	.0007	.00	.06	2.19*	.36	.003	50.72***

* $p < .05$ ** $p < .01$ *** $p < .001$

표 17에는 징벌횟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징벌횟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변수들의 관련성의 크기나 방향에 있어 징벌내용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다만 징벌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로 상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측치는 망상경향성($\beta = .06, p < .05$)이 있었는데, 이는 자해경력이나 교도관들의 상담의 결과와 일관성있는 방향성을 지녔다.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징벌을 받는 사람들 중 정신병리적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이수정, 서진환, 이윤희의 연구결과는 현재 망상경향성이 어떻게 징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게 될 지를 짐작하여 보게 한다.

범죄행동에 대한 예측변수 탐색

범죄행동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주는 지표로는 크게 범수와 본 범의 내용이 있었다. 본 범의 내

용은 Galegher와 Carroll(1983)의 분류를 토대로 2명의 교정공무원들의 사전 평정을 통하여 내용의 심각성이 미리 평가되었다. 이들 두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88%였다.

표 18에는 범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9에는 본 범 내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본 범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하여서는 수형자들의 전과관련 변수들도 회귀분석에 포함시켰으나, 범수의 경우 본 범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였다. 본 범이 수형자들의 과거 전과에 시간적으로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표 16에서 표 19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관리급 산정을 위한 징벌관련 사항을 예측하여 주는 변수로는 (1) 미결시의 생활태도, (2)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3) T 상담, (4) T 망상, (5) 자해경력, (6) 범죄동기, (7)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8) 가출경력, (9) 월 평균 접견횟수,

표 18. 범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05	.22		-.23			
모든 범법행위 건수	.30	.02	.47	19.59***	.45	.453	757.19***
과거 교정기관 수용기간	.008	.00	.27	11.07***	.54	.088	539.06***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19	.03	.14	6.38***	.57	.029	405.34***
재범기간	-.005	.00	-.11	-5.28***	.59	.013	320.62***
과거 소년원 수용기간	.01	.00	.12	5.30***	.60	.011	268.82***
T 포기	.01	.00	.10	4.74***	.61	.010	233.46***
폭력조직 가담	-.34	.10	-.07	-3.27**	.61	.005	203.98***
월 평균 접견횟수	-.05	.02	-.06	-2.90*	.62	.003	181.15***
범죄동기	.15	.06	.05	2.55*	.62	.002	162.73***

* $p < .05$ ** $p < .01$ *** $p < .001$

표 19. 본 범 내용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b의 표준오차	β	t	R ²	ΔR^2	F
절편	2.59	.21		12.38***			
범행 시 흉기사용	.26	.03	.30	10.22***	.14	.135	143.37***
형기	.0008	.00	.21	7.22***	.19	.054	107.57***
범죄동기	-.22	.05	-.14	-4.66***	.21	.015	79.09***
최종 학력	-.04	.01	-.14	-4.50***	.22	.014	64.66***
범수	.05	.01	-.15	-5.17***	.24	.015	56.62***
T 공격	.01	.00	.17	4.23***	.25	.010	49.97***
T 망상	-.008	.00	-.10	-2.53*	.25	.004	43.79***
미결 시 생활태도	.105	.04	.07	2.46*	.26	.004	39.29***
부모의 생존 여부	.04	.02	.06	2.08*	.26	.003	35.54***

* $p < .05$ ** $p < .01$ *** $p < .001$

(10) 최종 학력 등이 있었다. 전과 및 본 범 등 범 죄관련 준거와 관련된 변수로는 (1) 범수, (2) 형기, (3) 모든 범법행위 건수, (4) 과거 교정기관 수용기간, (5)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6) 과거 보호시설 수용기간, (7) 재범기간, (8) 범행 시 흉기 사용, (9) 범죄동기, (10) T 포기, (11) T 공격, (12) T 망상, (13) 미결 시 생활태도, (14) 폭력조직 가담 여부, (15) 월 평균 접견횟수, (16) 부모의 생존 여부, (17) 최종 학력 등이 있었다. 이들 변수들을 토대로 관리급 및 개선급을 산정하면 되리라 결론지을 수 있다.

상관분석을 통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회귀분석을 통하여 준거측정치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관리급과 개선급의 산정을 위한 예측변수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방향이나 크기를

다시 확인하였다.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던 이유는 회귀분석의 경우 공분산이 높은 변수들간의 관계성이 간혹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다른 각도에서 조율하여 보고자 함이었다. 표 20과 표 21에는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관리급과 수형자들의 범죄행동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개선급 산정을 위한 변수들간의 상관지수들이 정리되어 있다.

관리급 산정의 토대가 되는 징벌관련 준거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지니는 변수로는 미결 시 생활태도,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최종 학력, 월 평균 접견횟수, T 망상, T 상담, 가출경력, 자해경력 등이었다. 범죄동기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 범과 관련된 사항들은 수형기간 동안의 관리상의 문제를 나타내어 주는 지표인 징벌횟수와 징벌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방향은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관성있게 나타났는 바, 미결 시 생활태도와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가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

표 20. 관리상 문제행동의 준거변수들과 예측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

	수용생활 중 징벌횟수	징벌내용
미결 시 생활태도	.48***	.47***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44***	.37***
최종 학력	-.20***	-.18***
월 평균 접견횟수	-.15***	-.13***
T 망상	.21***	.34***
T 상담	.37***	.24***
가출경력	.18***	.18***
자해경력	.23***	.21***
범죄동기	-.01	-.02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03	.02

*** $p < .001$

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학적 측정치였던 망상경향성과 교정관들의 상담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반증하여 주는 가출경력이나 자해경력 역시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녔다. 반면 학력은 낮을수록 가족들의 월 평균 접견횟수가 적을수록 수형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행동을 다양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개선급 산정의 근간이 될 수형자의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변수들 중 상관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변수들은 범수, 형기, 모든 범법행위 건수, 과거 교정기관 수용기간,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과거 보호시설 수용기간, 재범기간, 범행 시 흉기 사용, 범죄동기, 자포자기 정도, 공격성, 미결 시 생활태도, 폭력조직 가담 여부, 월 평균 접견횟수, 부모의 생존 여부, 최종 학력 등이었다. 망상경향은 범수와 본 범의 심각성, 그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표 21. 범죄행동 준거변수들과 예측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

	범수	본 범 내용
모든 범법행위 건수	.67***	-.16***
과거 교정시설 수용기간	.57***	.02***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42***	.04
재범기간	-.07*	-.04
과거 보호시설 수용기간	.32***	-.03
폭력조직 가입	-.05	.10**
월 평균 접견횟수	-.18***	-.05
범죄동기	.03	-.11***
범행 시 흉기사용	-.04	.37***
형기	-.04	.31***
최종 학력	-.20***	-.15***
T 공격	.19***	.09**
T 포기	.34***	.01
T 망상	-.06	.01
미결 시 생활태도	.12***	.08*
부모의 생존 여부	.12***	.09**
범수		-.11***

* $p < .05$, ** $p < .01$, *** $p < .001$,

21).

수형자들의 범죄성향의 지표로서 가장 유용한 변수들은 모든 범법행위의 건수, 과거 교정시설과 보호시설 수용기간, 수용 중의 징벌횟수 등 전과관련 변수들이었고 자포자기나 공격성 등 심리학 측정치들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변의 지원 유무에 대한 변수로서는 부모의 생존 여부나 월 평균 접견횟수 등이 있었는데, 양부모가 다 생존해 있고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올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과모형 분석

회귀분석 결과 선정된 예측변수들을 중심으로 수형자들의 관리상의 문제와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잘 설명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인과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AMOS 4.0을 활용한 인과모형 분석은 회귀 분석 결과 예측치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들에 대하여 현행 분류심사 체제에서 가중치를 주어 범주화하는 방식(이윤호, 이수정, 이훈구, 2000)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관리급 산정에 토대가 될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여 주는 변수들의 모형분석, 그리고 개선급 산정에 근거가 될 수형자들의 범죄행동에 대한 모형분석이 따로이 수행되었다. 우선 관리급 산정에 토대가 될 인과모형분석에 포함되었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부록(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가설적 모형의 계수 산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정상분포 가정(Muthen, 1978; 이종목, 1990, 재인용)을 만족하는지 우선 검토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첨도 및 편포도는 모두 절대값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수들간의 상관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90 이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조선배, 1996)으로 사료되었다.

수형기간 동안 문제행동에 대하여 가설적으로 설정된 기본적인 모형은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재변수들간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가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수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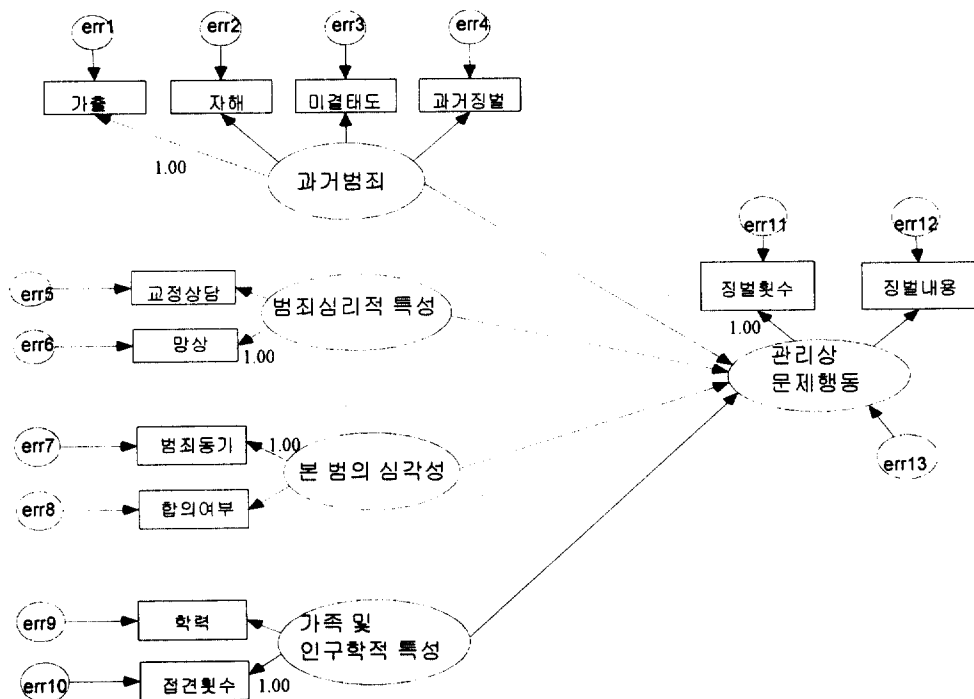


그림 3. 수형기간 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 인과모형

들의 잠재적 범죄심리적 특성은 그들 개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본 범의 심각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상관을 가정한 모형을 수정된 인과모형으로서 비교하였다.

우선 관리행동에 대한 기본 인과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χ^2_{30} 는 541.78이었으며 이에 대한 GFI는 .97, NFI는 .96, TLI는 .95 CFI는 .97, RMSEA는 .09였다. 이에 비해 심리측정학적으로 평가된 범죄성향과 과거의 범죄전력, 그리고 본 범의 심각성간에 상관관계를 가정한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향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모형의 χ^2_{48} 는 317.66이었고 이에 대한 GFI는 .98, NFI는 .98, TLI는 .97, CFI는 .98, RMSEA는 .07이었다. 이 두 모형의 χ^2_2 감소분은 약 124.12로 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RMSEA도 .05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모형이 관리 상 문제행동에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어졌다.

표 22에는 수정된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처럼 관리상 문제행동들을 설명함에 있어, 기본 모형이 설정한 내재변수들은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는 수정된 모형이 도식화되어 있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범죄 전력으로부터 관리상 문제행동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5, 이에 대한 t 통계치는 3.21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망상경향성과 교도관들의 평정으로 산출되는 범죄심리적 특성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계수는 .43, t 통계치는 2.05로 이 역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의 지지 및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관리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는데, 이에 대한 경로계수는 .18, t 통계치는 3.11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본 범 내용의 관리상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계수의 방향은 나머지 변수들과 달리 부적이

표 22. 시설 내 문제행동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계수	t
관리상 문제행동	← 과거범죄	.55	2.31*
관리상 문제행동	← 범죄심리적 특성	.43	2.05*
관리상 문제행동	← 가족 및 인구학적특성	.18	3.07**
관리상 문제행동	← 본 범의 심각성	-.47	-3.11**
가출	← 과거범죄	.21	
자해	← 과거범죄	.24	4.77***
미결태도	← 과거범죄	.58	6.07***
과거징벌	← 과거범죄	.46	5.84***
망상	← 범죄심리적 특성	.31	
교정상담	← 범죄심리적 특성	.54	7.03***
학력	← 가족 및 인구학적특성	.48	2.44**
범죄동기	← 본 범의 심각성	.36	
합의여부	← 본 범의 심각성	.25	3.60***
접견횟수	← 가족 및 인구학적특성	.41	
징벌횟수	← 관리상 문제행동	.98	
징벌내용	← 관리상 문제행동	.92	41.34***

* $p < .05$ ** $p < .01$ *** $p < .001$

었다는 것이다. 경로계수가 -.47로 이는 주로 범죄의 고의성 여부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즉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고의적인 경우 오히려 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등의 문제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에 대한 t 통계치는 -3.11로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후속적으로 범죄행동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범주형으로 변환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부록 표 I-2). 이 때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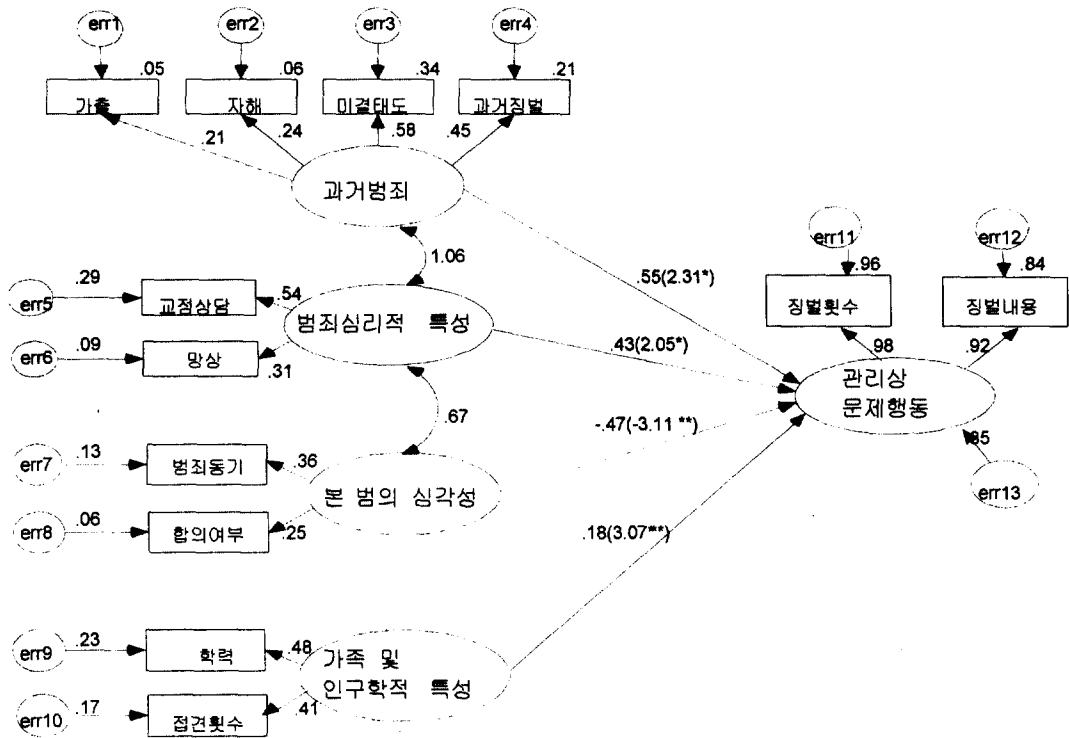


그림 4. 수형기간 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된 인과모형
(괄호안 수치는 t 통계치임, * $p < .05$ ** $p < .01$ *** $p < .001$)

를 기울여야 했던 점은 개선급의 산정에 최종적인 준거지표라고 간주되었던 범수와 본 범 내용간의 상관계수였다. 이 둘간의 상관은 -.13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범죄행동, 즉 범죄적 성향의 악질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관찰변수들끼리가 서로 부적인 관련성을 보임을 시사한다. 만일 이와 같이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관찰변수들

로 이루어진 내재변수들을 외생변수로 하여 인과모형분석을 실시한다면 내재변수들끼리의 관계가 왜곡되어 해석이 곤란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이 두 가지 변수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인과모형분석을 실시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개선급을 산정함에 있어 준거행동으로서 수형자들이

의 과거 범죄전력과 본 범 내용의 심각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따라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모형분석을 실시하기보다는 이미 그들 각각의 준거행동측정에 대해 실시되었던 회귀의 결과(표 18, 표 19)로 분석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논 의

현 연구는 전국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에 중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애초에 할당표집의 과정이 범죄의 종류

보다는 전국 교도시설의 지역 안배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는 형기가 상당히 긴 중범을 대상으로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범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전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산출된 모형들이 어느 정도 들어 맞을 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바, 이는 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동에 대한 인과모형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관찰변수로 선정한 범수와 본 범의 심각성이 부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살인 등의 중형을 연도 받은 수형자가 초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동지표가 범죄적 악질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준거지표라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을 예측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가석방이 된 사람들의 재범율을 토대로 개선급 산정모형을 재검하여 보는 일일 것인데, 이를 위하여서는 장기종단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응답을 하였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다만 1년이라도 이들의 범죄적인 행로를 추적한다면 이들 중 어떤 범죄적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는 조사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즉 현재의 분석으로는 변수들간의 명확한 인과성을 가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상관계수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들이기에 설명가능성 이상으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른 것처럼 장기종단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명확한 범

죄 예측인자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것이다.

총 합 논 의

무엇보다도 우선 수형자들의 세분화된 분류작업은 범죄인들의 교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수형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보안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각의 범죄유형 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을 보다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기에 교정현장에서의 보다 긍정적인 교정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세분화된 분류,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개별적인 처우만이 재범가능성의 절감을 가져 올 것이다. 피교육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만이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듯이 교정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교육을 실시할 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현행 분류심사는 네 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및 처우급이 바로 그것인데¹⁰⁾, 이 중 관리·감독의 경중을 결정하게 되는 관리급과 수형자들의 범죄적 성향의 진전도에 따라 그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개선급이 교도행정의 시행에 주요한 지표가 된다. 현 연구에서는 이들 두 분류의 기준을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관리급은 기본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의 관리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수형기간 동안 싸움이나 폭행에 연루되는가, 소란이나 난동의 소지가 있는가, 교도관의 지시나 시설

10) 분류업무지침, 법무부

표 23. 관리급과 개선급에 따른 처우방안 적정화 방안 제안

	개선 1범주(상)	개선 2범주(중)	개선 3범주(하)
관리 1범주(상)	생활지도 직업훈련	생활지도 직업훈련	문제행동치료 도덕성교육
관리 2범주(중상)	교정상담 문제행동치료	교정상담 문제행동치료	문제행동치료 도덕성교육
관리 3범주(중하)	문제행동치료	문제행동치료	문제행동치료 도덕성교육
관리 4범주(하)	교도소 적응교육 심리치료	교도소적응교육 심리치료	관리상 주의 특수처우

내 규율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이 주요한 준거행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수형자 본인은 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일단 징벌을 받게 되면 누진점수의 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개선급은 이 같은 관리상의 문제보다는 수형자의 내재적 범죄성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느냐에 의하여 산정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수형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수형자 개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행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일 것인 바, 관리급과는 그 산정의 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을 짐작하여 보게 한다. 예컨대 중형을 언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시설 내에서 꼭 문제행동을 야기하란 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개선급과 관리급의 산정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수형자들의 문제행동 가능성과 범죄성향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수용시설의 계호 정도나 적용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내용¹¹⁾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은 이

같은 기준의 적용과 그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에의 적절한 배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물론 국내 사정 상 표 23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설 내 처우는 아직까지 적용이 힘들겠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분야에 투입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수형자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화된 처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관리 상 문제가 농후하다고 진단되는 수형자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문제행동별 처우 프로그램의 적용을 비교적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수정과 서진환, 이윤호(2000)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수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 중 징벌을 두 번 이상 받은 수형자들의 경우 MMPI 점수 상에서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을 가

- 11)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 내 처우는 생활지도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정서교육 등이 있다. 이때 정신교육은 충·효·예양성교육, 국난극복사, 직업윤리, 민주시민의식, 제식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서교육은 TV나 VTR 시청, 독서지도 신문열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종교행사로 구성된 교회프로그램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다. 문제행동별 심리치료나 광범위한 행동치료 등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내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관리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형자들은 전과가 많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과격 문제 소양을 지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을 위하여서는 따라서 엄격한 계호보다는 교도소 환경에 대한 안내와 적응훈련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상 문제가 예견되더라도 범죄적 소양이 농후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좀더 심각한 보안상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태정 (1991).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배 (1994).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손명세 (1996).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윤성은, 임희철, 김치곤 (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 서진환, 이운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43-62.
- 이수정, 이운호, 공정식 (2000). 수형자들의 위험성 요인분석과 변별도구 개발. 형사정책연구, 11(4), 145-177.
- 이운호 (1999). 형사정책. 서울: 박문각.
- 이운호, 이수정, 공정식 (2000). 분류처우론. 서울: 동현출판사.
- 이운호, 이수정, 이훈구 (2000). 법무부 교정국 연구보고서. 법무부.
- 이종목 (1990).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공변량 구조모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동원 (1991).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조선배 (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최옥채 (1999). 교정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Austin, J. (1986). *Objective prison classification systems: A review*,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Bednarowski, J. (1993). Creating a treatment culture for special needs inmates. *Corrections Today*, 55, 100-107.
- Bohn, S. E. (1993). Nebraska focuses on developing inmate mental and social skills. *Corrections Today*, 55, 96-102.
- Cohen, D. A. (1996). Notes on the clinical assessment of dangerousness in offender populations. *Psychiatry On-Line*.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 modern test theory*. NY: Harcourt.
- Fortin, C. (1993). Jail provide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Corrections Today*, 55, 104-110.
- Galegher, & Carroll, J. S. (1983). Voluntary sentencing guidelines: Prescription for justice or patent medicine? *Law and Human Behavior*, 7, 361-372.
- Groom, B. (1999). Handling the triple whammy: serious mental illness, substance abuse and criminal behavior. *Corrections Today* 61(4), 114-119.
- Litwack, T. R. & Schlesinger, L. B. (1987). Assessing and predicting violence: Research, Law, and Applications. In I. B. Weiner and A. K. Hess (Eds.), *Handbook of forensic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Megargee, E. (1994). Using the Megargee MMPI-based classification with the MMPI-2's of male prison

- inm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37-344.
- Monahan, J. (1981). The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Toward a second generation of theory and polic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0-15.
- Monahan, J. & Walker, L. (1985). *Social Science in Law: Cases and Materials*. Mineola, NY: The Foundation Press.
- Motiuk, L. L. & Porporino, F. J. (1991). *The prevalence, nature and severity of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federal male inmates in canadian penitentiaries*. Research and Statistics Branch Correctional Services Canada.
- Muthen, B. (1978). Contributions to factor analysis of dichotomous variables, *Psychometrika*, 43, 551-560.
- O'Toole, M. A. (1997). NIC update. *Corrections Today*, 59, 146-157.
- Otto, R. K. (1994). On the ability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predict dangerousness: A commentary on interpretations of the dangerousness literature. *Law and Psychology Review*, 18, 43-68.
- Quinsey, V. L. (1995). The prediction & explanation of criminal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 Law*, 18, 117-127.
- Serin, R. C. (1990). Development and valuation of a psychological referral screening tool.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On-Line.
- Solomon, P. (1999). Response to model program for the treatment of mentally ill offenders in the communit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5, 473-475.
- Solomon, L., & Camp, A. T. (1993). "The revolution in correctional classification,"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 *Classification: A tool for managing today's Offenders*, (pp. 1-16) Layrel,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Steadman, H. J & Coccozza, J. J. (1980). The prediction of dangerousness-Baxtrom: A case study. In G. Cooke (ed), *The role of the forensic psychologist*. (pp. 204-215). Springfield, IL: Thomas.
- Teplin, L. (1990). The prevalence of severe mental disorder among male urban jail detainees: comparison with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 663-669.
- Van Voorhis, P., Braswell, M.,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 rehabilitation*. OH: Anderson.
- Witkin, H. A., Mednick, S. A., Schulsinger, P., Bakkestrom, E., Christiansen, K. O., Goodenough, D. R., Hirschhorn, K., Lundsteen, C., Owen, D. R., Philip, J., Rubin, D. B., & Stocking, M. (1976). Criminality in XYY and XXY men. *Science*, 193, 547-555.
- Zager, L. (1988). MMPI-based criminal classification system: A review,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5, 39-57.

부 록

표 1-1. 관리상 문제행동에 대한 인과모형분석을 위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가출	자해	미결 태도	과거 징벌	교정 상담	망상	범죄 동기	합의 여부	학력	접견 횟수	징벌 횟수	징벌 내용
가출												
자해	.24***											
미결태도	.06	.08*										
과거징벌	.12**	.16***	.27***									
교정상담	.12**	.10**	.40***	.18***								
망상	.20***	.20***	.18***	.17***	.17***							
범죄동기	.05	-.00	.21***	-.05	.21***	.02						
합의여부	.05	.02	.07*	.09**	.13***	.07*	.09					
학력	.25***	.14***	.08*	.18***	.13***	.16***	.03	.13***				
접견횟수	.04	-.01	.04	.16***	.07*	.09**	.03	.14***	.20***			
징벌횟수	.18***	.22***	.50***	.45***	.33***	.21***	-.00	.03	.21***	.13***		
징벌내용	.18***	.21***	.47***	.40***	.31***	.22***	-.02	.02	.20***	.11***	.90***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범죄행동에 대한 인과모형분석을 위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미결 태도	폭력	과거 징벌	보호 기간	교정 기간	범법 건수	재범 기간	포기	공격	망상	범죄 동기	흉기 사용	형기	학력	부모 생존	접견 횟수	범수	본범 내용
미결태도																		
폭력	.07*																	
과거징벌	.27***	.03																
보호기간	.13***	.06	.20***															
교정기간	.27***	-.03	.30***	.15***														
범법건수	.08*	.05	.20***	.16***	.62***													
재범기간	.09**	-.03	.15***	.22***	.49***	.59***												
포기	.11**	.04	.19***	.15***	.24***	.27***	.22***											
공격	.14***	.18***	.19***	.11***	.13***	.17***	.10*	.56***										
망상	.18***	.07*	.17***	.13***	.12***	.13***	.12***	.63***	.52***									
범죄동기	.22***	.01	-.05	.05	-.03	-.00	.03	.03	.00	.16								
흉기사용	.08*	.12***	.01	-.00	-.05	-.07*	-.10**	-.02	.07*	.00	.11**							
형기	.07*	.01	.03	.09**	.03	.21***	.20***	.10**	.07*	.12***	.06*	.36***						
학력	.08*	.02	.18***	.22***	.20***	.21***	.13***	.21***	.05	.16***	.03	.05	.05					
부모생존	-.01	-.07*	.08*	.02	.14***	.05	.01	.03	-.07*	-.01	-.07*	-.04	.11***	.22***				
접견횟수	.04	-.05	.16***	.04	.22***	.14***	.10**	.14***	.10**	.09**	.03	.08*	.11**	.20***	.12***			
범수	.12***	-.03	.32***	.18***	.65***	.68***	.62***	.31***	.19***	.17***	.00	-.06	-.18***	.20***	.06	.18***		
본범내용	.08*	.10**	.05	-.09**	-.07*	-.14***	-.14***	.03	.09**	-.00	-.11**	.37***	.52***	.09**	.09**	.08**	-.13***	

* $p < .05$ ** $p < .01$ *** $p < .001$

Development of A Tool of Inmate Classification

Soo Jung Lee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Jee-Eun Byun

Research Institute of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It isn't easy to assess people's dormant dangerousness.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variables to predict inmates' criminal records and their dangerous behaviors during imprisonment. Evaluation criteria of dangerousness in prison and criminal risk were inferred based on these variables. In study 1, Korean Correctional Personality Inventory was developed and in study 2, besides inmat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dditional crime-related variables were explored, which among the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angerous behaviors in prison and contents of criminal records.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various predictors effectively explained variance of dangerousness in prison; attitude during unconvicted detention, a number of punishments during imprisonment, results of correctional counseling, delusion, history of self-injury, history of abscondence, motivation of present crime, agreement with victims, a number of visitation of family members, and academic records. Also, variance of criminal risk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by criminal records, a term of imprisonment, a number of criminal behaviors including delinquencies, a term of previous imprisonment, a term of previous probation, a number of punishments during imprisonment, an interval of recidivism, use of weapons, motivation of present crime, psychological tendency of giving-up, aggression, attitude during unconvicted detention, involvement to gangsters, a number of visitation of family members, existence of parent, and academic records.

Keywords: corrections, psychological measurement, prediction of dangerousness, inmate classification

1 차원고접수 : 2001. 8. 21.

수정원고접수 : 2001. 11. 20.

최종게재결정 : 2001. 11. 26.